

공적 마스크 판매 첫날...“9시부터 대기, 구매해도 높아야”

정진수 대표 “마스크 들어오는대로 계속 ‘노마진’ 판매”

중소유통센터 “임대료 20%인하 수수료 동결·인하도 검토”

코스트코 가서 사려고 했는데 며칠동안 실패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마스크 살 준비를 했다. 그리고 9시부터 행복한백화점에 줄을 서있었다. 요즘 마스크 사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마스크 첫 구매자 정희은 학생, 15·여)

아침마다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마스크' 검색하는게 일이다. 기사를 보고 행사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 수량을 조금만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중복 마스크 구매자도 막고, 접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유모 씨, 50·여)

마스크 공적 판매가 시작된 첫날인 27일 행복한백화점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다. 행복한백화점이 준비한 마스크(크린웰 화사방역용마스크 KF94) 물량은 약 3만 개. 판매가격은 1개당 1000원이다. 시중에서 30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1/3 가격이다. 단 1인당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 30여명 9시부터 대기, 예상보다 차분하게 진행

이날 행복한백화점 앞에는 9시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대기줄이 생겼다. 하지만 30여명 정도에 그치면서 우려했던

혼잡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전 10시만 행복한 백화점 문이 열리자, 열화상 카메라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마치 공항 검색대를 연상시켰다. 행복한백화점 직원들은 방문한 사람들 모두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검사했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4층에 도착하면, 직원 한명이 손소독제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이날 현장은 수천명이 몰리면서 복잡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사람들은 행복한백화점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모두 차분히 본인들의 구매 순서를 기다렸다.

“매일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보다 줄이 짧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현장에는 뱀의 꼬리처럼 긴 줄이 4층 전체로 늘어섰지만, 20명에 가까운 행복한백화점 직원들이 마스크 판매를 돕고 있어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지금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1000만개에 육박하는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게 말이 돼나”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노로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오늘 준비한 수량은 약 3만 장 가량”이라며 “현재도 계속 참고

로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고, 약 17만장 가량이 준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혹시라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창고에 보유한 마스크 수량을 추가로 풀 예정이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이라며 “매일 아침 ‘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판매여부를 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직원이나 지인이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계산대를 지키며 공정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비롯해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곳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 중이다.

◇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로나 19 극복 위해 앞장...임대료 20%인하 뿐만 아니라, 수수료 동결·인하도 검토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마스크를 노마진으로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입점 상인 임대료 인하 및 수수료 동결·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복한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 20% 인하를 결정했다.

행복한백화점에서 안경점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임대료 인하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대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입점 상인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신발 매장을 운영하는 한 매니저는 “우리 매장의 경우에는 임대료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인하여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백화점은 현재 점포 상황에 따라 △임대료 △임대료+수수료 △수수료 등의 3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같은 상인의 의견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수료 동결 혹은 인하를 현재 검토 중이고 곧 입점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행복한백화점 매출이 50%정도 감소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수료 동결 혹은 인하를 검토 중이고, 매장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드려야 최고의 혜택이 될 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노마진으로 마스크를 판매 중인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백화점은 어떤곳?

중기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백화점이 공적판매처로 지정되면서 유통센터와 백화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1995년 중소기업관료지원을 위해 세워진 관료 전문 공공기관이다. 쉽게 말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통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브랜드K 운영 △오프라인 진출의 테스트베드인 ‘아임쇼핑 정책매장’ 운영 △소

상공인 관료강화를 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창업 및 혁신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사업’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플’ △판로지원 플랫폼 ‘아임스타즈’ 등이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오픈했다.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5호선) 인근에 위치했다.

‘행복한백화점’은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장소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비자의 니즈(needs)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다. 마스크 판매가 진행 중인 4층인 ‘브랜드K관’에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신천지 관련 소문 확산에 ‘뒤숭숭’

이만희, 전 부인 세종집 ‘소문’ 일파만파

지난 주말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청사를 긴 세종시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사직원을 포함해 확진관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심환자가 수백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데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전 부인 집이 세종에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세종따까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종시가 ‘코로나19’의 2번째 확산지가 될까 ‘전전긍긍’ 하는 모양새다.

27일 세종주민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30대 A씨가 코로나19의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세종시도 ‘감염’ 공포에 휩싸였다. 26일까지 집계된 세종시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300여명을 넘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더 짙어진 상태다.

특히 최초 확진자의 발생 소문이 정부 발표 전날부터 나돌았던 세종따까페에선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실시간 올라오는 등 정보공유의 열기가 더해진 상태다. 여기엔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전 부인 사는 집이 세종에 있다는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이번엔 ‘제2의 확산지’ 우려까지 보태졌다.

이만희 교주의 사실흔 관계인 신천지 2인자 김남희씨가 교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떠난 상황이라 89세 노인인 이 교주가 전 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신천지 교리상 교주는 영생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노쇠함을 외인에게 노출하기 힘들어 결국 측근인 전 부인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300명의 의심환자 중에 정부 직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정부세종청사의 긴장감도 높다. 이미 청사 내 임시 출입문은 물론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입구 전체 열화상카메라와 직원을 배치했다.

일부 부처에선 외인의 출입이 비교적 쉬운 출입기자실이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은 저마다 거리를 두고 걸으며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부처 관계자는 “적어도 코로나19의 최초 ‘확진부처’라는 오명을 나 때문에 얻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나마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정부청사가 세종시 내에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1595명으로 전날보다 334명 늘었으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731명으로 전체 45.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간 597명에 비해 134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8명을 유지했고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55명으로 늘었다. 이외에 경남 36명, 광주 9명, 대전 8명, 충북 7명, 충남 7명, 울산 6명, 강원 6명, 인천 3명, 전북 3명, 제주 2명, 세종 1명 등이다.

코로나 확산 대구·경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될까

대구·경북이 고용안정자금 등 전방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제조업 매개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연쇄 섰다운(가동 중단) 우려 등 산업 피해 확산 조짐이 일자 해당 자치단체도 지정 신청 시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아직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지정 요청이 있을 뿐이어서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에 도입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산업침체를 겪은 해당 시·도지사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현장 실사와 지역산업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경쟁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정이 되면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금융·세제, 일자리 및 일감 마련 수요창출, 정부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혁신역량, 지역성원·관광 활성화, 고용 안정 등 6개 부문에 대해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한국지엠(GM) 자동차 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 군산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본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

암·목포·해남 등이 2018년에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만 1300여명을 훌쩍 넘긴 대구·경북지역은 140여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고, 조성 중인 산단까지 포함하면 170여개에 이른다. 산단 입주기업 수는 전자·석유화학·철강 등을 중심으로 1만5000여곳이다.

이들 기업은 생산 83조966억원, 수출 264억7000만달러(약 32조 원), 고용 29만1818명을 책임지고 있어 코로나19 급습에 따른 공장 폐쇄 등 피해가 커지면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선 특정 산업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대규모 실직, 휴업, 폐업 등 실제 피해 규모가 가능이 돼야 하는 만큼 6개월 이상의 피해 산출 시기가 필요해 당장은 신청 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제된 신천지 성전. 전북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 1만113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명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와 가족까지 증상 유무를 파악하려 예정이다.

만약 정지권·산업계의 강한 요청 등에 의해 지자체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정 요건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8년 4월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던 군산도 고시 개정을 거쳐 지정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직접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지역 신청을 준비하려면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2018년 군산지역이 지정될 당시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한 사례 등이 있으니 신청 요청 등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착실히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북 구미국가산단을 찾아 ‘코로나19 대응현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임대료 30% 인하, 원자재·부품 수급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시 스마트 행정 도시 만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올해부터 세계적인 스마트 행정도시 만들기에 주력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외의 국가기관을 추가 유치해 국가행정중심도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종시(행복도시) 건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적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는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